원전 도입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 Seoul News

Recommended Citation

"원전 도입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 Seoul News", Nautilus in the News, June 13,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c%9b%90%ec%a0%-%80%ed%84%b0-%ec%8b%ac%ea%b0%81%ed%95%9--%ec%95%88%ec%a0%84%eb%b6%88%ea%b0%90%ec%a6%9d-seoul-news/

Click here to read original report [in Korean].

보고서 31년만에 공개 “안전 점검·품질 관리 소홀

미국의 안보·환경·자원 분야 정책연구 민간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한민국의 핵 발전 프로그램의 안전 측면 업데이트 리뷰’ 문건을 31년 만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UNDP)의 요청으로 1982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노틸러스연구소가 2010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는 최저 수준”이라면서 “몇몇 사례에서 안전·품질 담당 인력이 일정을 연장하지 말도록 조직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국 원자력 업계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점검과 품질 보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핵발전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View this online at: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c%9b%90%ec%a0-84-%eb%8f%84%ec%9e%85%eb%b6%80%ed%84%b--%ec%8b%ac%ea%b0%81%ed%95%9c-%9d-seoul-news/

Nautilus Institute
608 San Miguel Ave., Berkeley, CA 94707-1535 | Phone: (510) 423-0372 | Email: nautilus@nautilus.org